【특집논문】

‘코리아문학’의 통일 · 통합 (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4.27판문점선언’(2018.4.27), ‘9월평양공동선언’(2018.9.19)의 문학적 확산이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문학 교류의 역사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작가 · 문학의 소통 · 교류가 시도된 것은 1961, 1989, 2005년 세 차례였다. 4.19혁명 후 북한 작가들은 민족문학의 명분 아래 문학 교류를 제안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되었다. 1989년 황석영 등의 노력으로 남북작가회담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때의 교류 계획과 협력의 청사진은 ‘민족작가대회’(2005)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및 기관지『통일문학』간행(2008)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보수정권 때문에 더 이상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이제,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선 2018년의 정세변화에 맞춰, 문학 교류의 ‘계승과 신설 병진’책을 제안한다. 2006년의 연합조직을 계승하되, 세대교체와 미디어 콘텐츠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때 통일문학, 민족문학이란 개념이 더 이상 사회적 심리적 억압 ‘장치’가 되면 곤란하다. 남북한 문학의 기득권을 버리고 ‘코리아문학의 리부트’가 필요하다. 당위적 통일 ·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 소통을 위한 전 세계 ‘한겨레 언어문화 자료’의 인터넷망(유튜브 등) 허브 구축이 그런 예라 하겠다.

주제어: 한반도문학, 통일 · 통합, 남북한문학, 통일문학, 민족작가대회, 6.15민족문학인협회,『통일문학』지.

Ⅰ. 문제제기
: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문학적 확산

2018년은 남북 분단 70년사상 특기할만한 해이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분단 · 냉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도정의 출발점에 섰기 때문이다. 오랜 분단체제가 금방 균열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역사의 대세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도정으로 봐도 좋을 터이다. 2007년의 10.4선언 이후 ‘잃어버린 10년’동안 신(新)냉전기였던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11년만의 대격변이 현재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세계만방에 분단 · 냉전체제를 끝장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한(조선)반도의 전쟁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평화체제로의 도정에 중요한 불가역적인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10년 동안 타의로 ‘중단’된 남북의 문학 교류를 재개하고 좀 더 진전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그를 위하여 지난 교류 · 협력의 역사를 정리하여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끔 불가역적인 새로운 교류 · 협력 방안의 제안과 향후 과제를 선점하기 위하여 쟁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짚어볼 대목은 남북 교류 · 협력 나아가 평화와 통일 문제를 보는 남남 갈등 특히 세대 간 격차와 해소방안이다. 사회적 의제[Agenda]를 주도할 세대교체 자체가 쟁점이라는 말이다. 분단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서 세대가 바뀌고 남북 인구 구성도 많이 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여성하키 단일팀의 구성 문제를 대하는 남쪽 청년세대의

부정적 반응도 곱씹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래를 함께 꾸릴 남북의 새로운 세대 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마련해야 한다. 거기 더해 남북 문학 교류의 물적 토대로서 정교한 정세분석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치밀하게 갖춰야 한다.[1)]

가령 쟁점 부각을 위하여 기존의 동아시아 담론지평에서 북한이란 불편했던 존재를 아예 외면 · 무시했던 관행을 깨고 국가로 실재하는 '조선'을 하나의 '국가이자 통일 대상인 특수관계'를 이중승인하는 대승적 차원의 세계관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저 '1987년 체제'가 강요했던 '민족, 통일, 계급, 리얼리즘(사실주의)' 등 권력지향적 거시담론을 반복하거나 퇴행적으로 요구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통일의 '과정'에 꼭 '통일'이라는 화두를 앞세울 것인가? 뒤에 세우든지 전략적 괄호 넣기가 효과적이지 않는가? 당장은 통일이 아니라 통이(通異, 統二)나 국가연합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또한 그 연결고리에 여전히 민족이란 '오래된 미래' 개념을 강박적으로 넣어야 하는가 같은 합리적 의문을 포함한 새로운 문제의식이 제기된다.[2)] '민족, 통일, 계급, 리얼리즘(사실주의)' 등 '올드보이' 기성세대의 도덕적 당위가, 문화적 다양성을 자기정체성으로 삼는 2030 신세대 등 적잖은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억압기제, 사회심리적 '장치'[3)]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송두율, "'9월 평양선언'에 부쳐," 『경향신문』(온라인), 2018.1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12059015&code=990100&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u〉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남북 문학 교류 세미나'에서 남북 교류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정도상 작가의 남북 작가 교류 복구안, 김재용 교수의 '〈통일문학선집〉 남북공동편찬' 재개 사업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2018년에도 여전한 "올드보이의 귀환"이 문제라서 세대교체와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Ⅱ. 분단 · 냉전체제에 맞선 통일문학운동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

여기에서는 70년 넘는 한반도의 분단 · 냉전체제에 맞선 과거 남북 간의 문학 교류사를 살펴본다. 해방 후 남북 분단 내내 인위적 장벽에 막혔던 남북 작가 · 문학의 소통 · 교류가 본격 시도된 것은 1961, 1989, 2005년 세 차례였다. 교류 제안만 이루어진 것이 1961, 1989년이었고, 실제 성사된 것은 2005,6년이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이듬해 5.16 군부쿠데타 이전까지 북한 작가들은 남과의 대화와 교류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가령 1961년 3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한 한설야 위원장의 보고를 보면, 전시였던 1951년 3월 '북문예총과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과의 련합대회' 후 문예총이 결성되었다는 식으로 남북 연합의 전사(前史) 전통 위에서 당금의 문예총이 창립되었다는 '조선반도 대표성'을 명분으로 삼는다.

1953년 9월 전국 작가 예술가대회 후 임화 · 김남천 · 이태준 등 박헌영계 남로당 계열 종파분자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문예총을 해소하고 작가, 음악가, 미술가 3개 직능대표 동맹만 남겨두었다가, 체제가 안정된 1961년 초에 명실상부한 예술장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해방 후 수백 명 맹원에서 출발한 북한 작가 예술

3) 여기서 '장치'(dispositif)는 조르조 아감벤이 미셸 푸코의 통치성 담론을 전유해 만들어낸 개념이다. 푸코와 아감벤에 따르면, 장치는 "담론, 제도, 건축 상의 정비, 법규에 관한 결정, 법, 행정상이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 · 도덕적 · 박애적 명제를 포함하는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이자 "이런 요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네트워크"이다. 아감벤은 장치의 사례로 감옥, 병원, 공장, 펜, 글쓰기, 문학, 인터넷서핑,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들었다.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역,『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서울: 난장, 2010), pp. 17~33.

가 조직이 16년이 지난 1961년 당시 8천여 명이란 보고도 인상적이다.[4] 때문에 '남조선 작가 예술가들에게' 남북 문화 교류와 평화 통일을 호소(p.28)하는 대목이 자연스럽다.

문예총 (재)결성대회에서는 한설야 위원장의 보고 한 귀퉁이에 의례적으로 남북 문학 교류만 덜렁 제안한 것이 아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명의의 공개서한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식 채택하였다.[5] 이에 호응하여 민족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제안한 김상오의 4.19 1주년 기념시 「그렇다, 그것이다, 만나야 한다」(1961.5.16.)을 보자.

> 그렇다, 그것이다, 청년 학생들이여,/ 바로 그것이다, 남북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렇게 정다웁게, 그렇게도 반갑게,/ 만나서 손을 잡고 껴안아야 한다./ 만나서 어깨도 서로 툭 치고/ -여어, 친구!- 껄껄 웃기도 하고/ 얼싸안고 눈물도 흘려야 한다.//
>
> 그렇다, 그것이다, 청년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사투리야 조금씩은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의 피를 이은 우리들은 한겨레,/ 툭 털어 놓고 가슴 활짝 헤치고/ 같은 모국어로 이야기해 보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같지 않으리//
>
> (중략) 그렇다, 그것이다, 남북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안 만나고 언제까지 갈라져 살랴./ 그거야 너무 슬퍼 어찌 견디랴./ 분하고 원통해서 어찌 참으랴!//
>
>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제 땅에서 만나야 한다, 조선 청년들이여!/ 만나서 조국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 만나서 민족의 앞날을 의논해야 한다./ 자식들이 만나면 부모들도 만나리,/ 자식들이 모이면 집안에 경사가 나리./ 그렇다, 그것이다, 조선의 아들딸들아,/ 그대들은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신성한 위업을 시작해야 한다![6]

---

4) 한설야, "천리마 시대의 문학예술 창조를 위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 『조선문학』 (1961년 3월호), pp. 13~29.

5)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문학』 (1961년 3월호), pp. 8~12.

텍스트를 보면, ‘우리들은 한겨레’란 혈연공통체, ‘같은 모국어’란 언어공동체에 공통점에 근거하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함축적 시어를 통한 정서적 환기보다는 직설화법으로 “~해야 한다”를 반복하지만, 당위적 정언명제보다는 일종의 후크송처럼 경쾌한 반복화법으로 청각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읽힌다. 4.19혁명(인민봉기)에 고무된 북한 시인이 남북 청년 학생들의 교류 시도를 고무 찬양하는 구호시의 이면에는 작가들도 만나자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북한 작가들은 4.19 전후 몇 년간 이승만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인민봉기’로 정권을 잡은 남한 민중의 통일 열기를 작가들도 받아들여 ‘북남 문학 교류’를 ‘민족문학’의 명분 아래 실행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남북 교류가 무산되자 ‘민족문학’의 교류 근거는 사라진다.[7] 자기네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기에 ‘순수문학’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남한과의 교차점은 ‘민족문학’이지만 그 대척점에 ‘순수문학, 민족주의문학, 반공문학’이 있어 교류가 어렵다고 비난한다.[8]

한편,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를 앞둔 1980년 1월 7~10일의 제3차 조선작가대회에서 ‘북남 문학 교류’를 공식 제안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계급문학의 반대개념이라서 거의 금기시하고 사용하지 않던 ‘민족문학’이란 담론을 꺼낸다. 조선작가동맹은 24년만에 열린 작가대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남한 작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보낸다.

---

6) 김상오, “그렇다, 그것이다, 만나야 한다(4.19 1주년 기념시),” 『문학신문』, (1961. 5.16), p. 1.

7) 자세한 전말은 김성수, “4.19와 1960년대 북한문학- 선동과 소통 사이: 북한 작가의 4.19 담론과 전유방식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0호 (2014) 참조.

8) 김해균, “남조선문학이 걸어온 길,” 『조선문학』, (1966.1), pp. 95~99.

우리는 1980년대 첫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면서 우리의 민족문학 건설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를 가지였다. (중략)

남조선에서 한 독재자는 제거되였어도 그 무덤 우에 솟아난 것은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유신' 잔여세력들의 폭압과 광란적인 칼부림이다.(중략)

우리 북과 남의 작가들은 조국과 인민이 겪고 있는 분렬의 수난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지성인으로서 서로 주의와 사상이 다르고 리념이 다르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민족적 량심과 애국애족의 감정을 합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오자.

남조선작가들이여! 우리 북과 남의 전체 작가들은 마음과 붓을 하나로 합쳐 우리의 슬기롭고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통일된 삼천리강산에 찬란히 꽃피워나가자.

-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1980년 1월 10일 평양[9] -

이는 문학 교류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고 싶어서 비정치적 민간 교류의 일환으로 제안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의 종말(1979)로 인하여 남북 대화를 재개할 적기라고 파악하여 정세 변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1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명의의 공개서한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4.19혁명을 계기로 한 남북 교류와 통일 열기를 반영한 데 반해, 1980년의 제안은 북측의 일방적인 정치 선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훗날 염무웅 등의 회고[10]에 의하면 남한 작가 중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따라서 공식성을 띠지 않은 1980년의 제안은 북한의 의례적인 대내용 선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분단 70년간 남북의 통일 열기를 돌이켜보면, 1989년 문익환 · 황석

9)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남조선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성명)," 『조선문학』, (1980.2), pp. 31~32.

10)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에 대하여," 『실천문학』, (1990 겨울호), pp. 22~28 참조.

영 · 임수경 방북사건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전향적 통일운동 때 고조되었다가 1992년 말 소련의 몰락으로 열기가 급격히 사라질 때까지 3,4년간 최고조에 달했다. 문학장(文學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령 북한 시인 최승칠은 '백두에서 판문점까지-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하여'란 '시초'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차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임수경 사건을 두고, 「민족」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어찌하여 남녘에서 찾아온 어린 처녀를/ 온 나라가 안아올리며 그리도 환호로 끓는가/ 어찌하여 량순한 그 얼굴/ 먼 빛에 보기만 해도/ 심장은 울보채고 눈물이 볼을 적시는가/ 말해다오, 진정 민족이란 무엇인가?"[11]

북한만 통일 열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문학장(文學場)만 보더라도 1988년의 이른바 '납월북작가 해금조치' 당시 재 · 월북작가 작품과 북한문학 작품이 봇물처럼 소개되었다. 1987년 6.10항쟁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88 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내외적인 이념적 포용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오랜 준비와 단계적 조치 끝에 '납 · 월북작가 해금'조치가 단행되었던 것이다.[12]

통일 열풍의 문을 먼저 연 것은『실천문학』이었다.『실천문학』1988년 겨울호의 '특별기획 · 북한문학 작품선' 특집에는 북한 대표작 10편(시 8편, 소설 2편)이 소개되었다.[13] 조기천의 「백두산」, 이기영의 「개벽」 등은 남한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소개된 북한작품이다. 이 기획을 객

11) 최승칠, "'백두에서 판문점까지-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하여(시초)," 『조선문학』, (1989.11), p. 69.

12) 그간의 상세한 경과와 의의에 대한 논의는 이봉범, "냉전과 월북, (납)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제37권 (2017.4.) 참조.

13) 조기천, 「백두산」(서사시 발췌); 리찬, 「달과 딸과 어머니와」(시); 백인준, 「녀인도」(시); 박세영, 「위원회에 가는 길」(시); 김우철, 「농촌위원회의 밤」(시); 조기천, 「흰 바위에 앉아서」(시); 정문향, 「푸른 벌로 간다」(시); 김조규, 「모란봉」(시); 이기영, 「개벽」(단편소설); 리북명, 「로동일가」(소설 발췌)

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정전(正典)을 전문가 시각으로 제대로 선택하여 우리 독자가 접근하기 편하게 편찬 · 소개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수령론에 입각한 개인숭배나 신파조 서사가 강한 주체문학의 문화정전('총서 불멸의 력사' 시리즈 등)[14]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노동 찬양이 위주인 리얼리즘 작품이라 상대적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1988년 7월 2일 7.4남북공동성명 16주년을 맞아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의 회장단(회장 김정한, 부회장 고은 · 백낙청)이 남북작가회담을 제창한 바 있다.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작가까지 포함하는 '범민족작가회의'를 열 것을 역제안하였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회담 대표를 5명 선정하여 판문점 예비회담을 제안했으나 문공부 · 통일원 · 한미연합사에서 불허하여 무산되었다.[15] 이때 북한 작가들은 판문점 북쪽지역에서 남측 작가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16]

---

14) 김일성 개인숭배물인 '총서 불멸의 력사'를 북한 주체문학을 대표하는 문화정전으로 규정한 것은, 김성수, "수령문학의 문학사적 위상 - 북한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불멸의 력사〉 총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신여대 인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공저) (서울: 소명출판, 2009.8), pp. 328~353 참조.

15) "3월 24일 문공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단 대표성과 관계법령 미비를 들어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고, 이어서 당일인 27일에는 항의성 시위의 뜻으로 임진각을 향해 가던 대표단 등 회원 26명이 마포서로 연행되는 동시에 며칠 뒤에는 준비위원장 고은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에 대하여(권두에세이)," 『실천문학』, (1990 겨울호), pp. 22~24.

16) 『로동신문』, 1989년 3월 28일자 4,5면 기사 5편 참조. 4면 기사 「북과 남, 해외동포작가회의 소집을 위한 북남대표들의 예비접촉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북과 남, 해외동포회의 예비접촉 우리측 대표단 성원들이 판문점에서 시를 발표」,

이를 다룬 시를 한편 보자. 북한 대표 시인 오영재의 즉흥시 「전해다오」이다.

> 자리가 비어 있구나/ 고은, 신경림, 백락청, 현기영, 김진경/ 그리고 간절히 우리를 청해 놓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허나 우리는 나무라지 않으마/ 그것을 나무라기에는/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터지는 듯 분하구나//
>
> 지금쯤/ 어느 저지선을 헤치느라/ 온몸이 찢기어 피를 흘리고 있느냐/ 애국의 뜨거운 가슴을 열고/ 그들이 달려오는 길을/ 그 누가 가로막았느냐/ 아, 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오가는 바람아/ 떠가는 흰구름아/ 우리의 이 목소리를 실어가다오//
>
> 그리고 전해다오/ 오늘은 우리 돌아서 가지만/ 마음만은 여기 판문점/ 이 회담장의 책상 위에 얹어 놓고 간다고/ 정의와 량심의 필봉을 높이 들고/ 통일의 길을 함께 갈/ 그 날을 기어이 함께 찾자고/ 바람아, 구름아, 전해다오///
>
> -「전해다오」 [17]-

「전해다오」는 북한에서 활발한 시작(詩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영재 시인이 1989년 3월 27일 '남북작가회담' 예비 접촉이 남한 당국과 한미연

5면 기사 「≪남북작가회담을 허용하라≫ - 남조선의 민족문학작가회의 성원들이 판문점을 향해 서울을 출발,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북남작가들의 예비접촉 남측 단장이 성명」, 「남측 대표들의 북행길을 그 누가 가로막았느냐 - 이루어지지 못한 북남작가들의 판문점 상봉을 두고」, 「파쇼도당이 북남작가들의 예비접촉 남측 대표들을 련행」 등의 기사를 보면, 후일 염무웅, 황석영 등의 회고와 사실이 부합된다.

17) 오영재, "전해다오," 『녹두꽃』, 제3호 (1991.8), pp. 73~74. 『로동신문』, 1989년 3월 28일자 4면 기사 「북과 남, 해외동포회의 예비접촉 우리측 대표단 성원들이 판문점에서 시를 발표」를 보면, 박세옥의 시 〈그날은 오리〉와 오영재의 시 〈전해다오〉가 실려 있다. 〈그날은 오리〉 마지막 연에서 "그날은 오리/ 아, 얼싸안고 얼싸안을/ 그날은 오리/ 하나의 피줄기로 고동치는 이 땅우에/ 가장 높은 통일의 탑을/ 우리의 손으로 세우리라!"고 노래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수록되었던 북한 시는 황석영의 소개로 『녹두꽃』에 실렸는데, 재수록 자체가 남북 문학 교류의 한 획을 긋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로동신문』 자료를 제공해 준 이지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합사에 의해 무산되자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다 즉흥적으로 낭송했다고 알려졌다. 북한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판문점에서 남한 측 대표단을 기다리다 접촉 자체가 통일로 출발지부터 원천봉쇄로 끝나고 고은, 신경림 등 5명이 관계당국에 연행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시를 낭송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1990년 창간된 무크지『녹두꽃』3호에 실린 '통일 염원 남북 다섯 시인의 통일 낭송시' 기획에 수록되었다.[18]

그런데 무크지『녹두꽃』은 북한 작품을 불법으로 게재했다는 혐의 등 여러 이유로 폐간되었다. 1년 후『녹두꽃』을 냈던 출판사에서 다시 문예지 무크인『노둣돌』을 창간하였다. 이 무크지에 황석영의 특별기고가 실려 있다. 김형수, 김진경 등 편집주체의 서면 질의에 황석영의 답변 방식을 설문 대담 형식으로 편집한「통일을 위해 문학의 길을 걷다보면 어디나 조국이었네」[19]가 그것이다. 그 중 제7번 설문을 보자.

> "선생님은 방북 당시인 89년 4월 23일에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최영화 제1부위원장과 '남과 북이 민족문학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서'를 채택,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남 · 북 · 해외의 문학작품을 함께 싣는『통일문학』(계간지)이 북한에서 발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합의서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20]

---

18) 편집주체의 기획의도를 밝힌 종간사의 한 대목이다, "북의 두 분이야 낭송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고은 어르신, 김남주 선생님, 그리고 젊은 고규태 시인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낭송시인으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게재에 대한 승낙조차 받을 수 없었던 북의 두 시인과 더불어 우리의 통일 노래꾼 세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김형수, 정도상, 백진기, "녹두꽃이 떨어지면(머리말),"『녹두꽃』, 제3호(종간호) (서울: 두리출판사, 1991.8), pp. 8~9.

19) 황석영, "통일을 위해 문학의 길을 걷다보면 어디나 조국이었네(특별기고, 설문대담),"『노둣돌』, 창간호 (서울: 두리출판사, 1992.8), pp. 86~143.

20) 위의 글, p. 100.

이에 대한 답변에서 황석영은 '남과 북이 민족문학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서'의 실체적 진실을 강조한다. 합의서의 머리말을 보면, 남북 쌍방은 황석영 범민련 대변인의 평양 방문이 서로 상대측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며 남북 문학예술인들 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익하였으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문학예술인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남북 문학예술인의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서로 상대 예술의 실상을 알고 당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바로 소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21] 하지만 이는 남북의 검열시스템의 비대칭을 의도적으로 묵인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1989년 당시 한반도 이북의 북한 작가와 학생들은 황석영의『장길산』같은 작품 속에서 남한의 민중들과 간접적으로 문학적 만남을 구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학 분야에서 남한 작품과 함께 동시대의 북한 문학을 소개하는 조선작가동맹 산하 통일문학분과 기관지인 계간『통일문학』지의 발간이 그 물적 증거이다. 적어도 이북 출판물에 남과 북의 문학이 동시에 게재되거나 동시대 남한 문학작품이 출판된 일은 1988~90년 당시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노둣돌』창간호의 설문 대담인「통일을 위해 문학의 길을 걷다보면 어디나 조국이었네」제8번 문항을 계속 보자.

>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잘 알려진 대로 '88년 7월 2일에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조선작가동맹' 앞으로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그 실행 과정에서 대표단 5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움직임이 있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대중적이고도 공개

21) 위의 글, pp. 101~105.

적으로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올 '92년 들어 저희 '민족문학작가회의 통일문학인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일신하여 그간 소강상태에 있었던 '남북해외 작가회담'을 다시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략) 89년부터 방북투쟁 등으로 자주교류의 물꼬는 터졌다고 하겠지만, 범민족대회의 완강한 저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당국은 창구일원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작가회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당국이 이쪽의 의도대로 허용할 리도 없고 자칫하면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 이용당할 우려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연결시키면서 '만남' 자체를 국가보안법과 정면 대결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대중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고도 보겠습니다. 89년과는 달리 지금은 방북이나 만남 자체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북에 대한 금기는 공안정국 당시와 똑같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군축 문제는 뒷전에 미뤄놓고 북에다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식의 교류를 우선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으로서는 북에서도 '작가회의'라고 하여 특별히 곱게 볼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국보법에 정면 도전하면서 분단의 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선도적 투쟁은 작가 예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22]

그렇다면 1988,9년 시기에 한반도 남북에선 서로 상대방 정기간행물, 출판물의 문학을 통해 남북한 주민 · 민중('인민'과 '국민'의 또 다른 개념어)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정서적 교류를 은연 중에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지금은 고인이 된 원로 월남 시인 이기형의 통일 담론과 김규동의 시 「북의 시인에게」도 당시 상황을 대변한다.

먼저 이기형 시인은 남북한 정치권이 통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전에 처져 있는 반면 문화권이 앞질러나가는 현상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경하해 마지않는 현상이라 칭찬한다. 1990년 겨울의 남북통일음악제와 1991년 4,5월의 일본 지바 남북통일탁구팀의 눈부신 활동은

22) 위의 글, pp. 106~107.

남북 7천만 동포의 감격이요 눈물이라면서, 시인의 가슴에는 남북 선수와 통일응원단이 부르는 「아리랑」의 여운이 쟁쟁하게 들려온다고 감격해 마지않는다. 통일 후에 재능 있는 남북형제가 힘을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학작품, 예술작품, 학술작품을 창조하는 '문화황금시대'를 가슴뿌듯이 그려보곤 한다고 상상을 펼친다.[23]

김규동 시인도 "여보 통일이 왜 안되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우/ 우리 힘 우리 노력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우//(중략) 여보 잠자코 있지 말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고도 해줘요/ 옛날엔 그랬잖아 아, 옛날엔 그랬잖아"[24]라고 애틋하게 노래한다. 마치 잠시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싸움하는 노인네 심정으로 남북 민중의 정서적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물론 남북 문학 교류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원로 시인의 정감 어린 호소에만 기댈 것은 아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인내와 불굴의 소통 교류 ·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열정, 그리고 치밀한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노둣돌』 편집진의 제8번 설문을 보면 바로 그 민족문학작가회의와 조선작가동맹의 '남북작가회담' 실패 이후 후속작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예지 편집진 김형수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통일문학인위원회'에서 1992년 집행부를 일신하여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해외 작가회담'을 재개한다. 이에 투옥된 황석영은 작가들이 국보법에 정면 도전하면서 분단의 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선도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

23) 이기형 권두에세이, "문화 향상과 조국 통일의 지름길," 『실천문학』 (1991년 여름), pp. 6~10.

24) 김규동, "북의 시인에게," 『창작과비평』 (1993 겨울호), p. 146. 월남한 원로 시인의 애절한 연가이다.

25) 황석영, "통일을 위해 문학의 길을 걷다보면 어디나 조국이었네," pp. 106~107.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남북 작가 교류 · 협력사업의 청사진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남북의 문학인들은 우선 상대편의 문학작품들을 자유롭고 선입견 없이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출판물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문학인의 교류는 출판교류의 토대 위에서만 실질적인 내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남북 작가들의 신작을 묶어내는 잡지의 공동발행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비평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
> (중략) 또한, 통일민족문학사의 구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문학사에서의 근현대 부분은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문학사의 정통성을 해석하는 시각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예상되는 터이지만, 그러나 논란의 과정이 낭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쪽의 항일혁명문학 전통이 토론 · 수용되는 동안 우리의 민족문학사는 크게 확장될 것이고 이 확장된 시야 안에서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의 제반 문학경향들이 적절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중략) 남북작가회담을 포함한 남북 문화교류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때 진정한 실체를 획득한 것이며 그것은 남북 사회의 민주화 · 자주화 · 인간화를 추구하는 전 민중적 노력을 통해 불가역의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26]

황석영, 최승칠, 염무웅 등의 1990년대 초 문건을 종합해보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문학 교류의 의의에 대한 명분과 구체적인 실행 사업 요지가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의 같은 민족이 공유하는 모국어를 자신의 활동 근거로 가지고 있는 문인들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청사진을 제시한다.[27] 가령 합

---

26)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에 대하여(권두에세이)," 『창작과비평』 (1990 겨울호), pp. 24~28.

27) "남과 북이 민족문학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서"(1989)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문건은, 최승칠, "혈맥은 가를 수 없다- 공화국을 방문한 황석영과 지낸 나날을 돌이켜보며(수기)," 『조선문학』 (1991.1); 황석영, "통일을 위해

동창작집과 평론집을 각각 출판하여 상호 교류하거나, 하나의 서사시를 남북 시인이 공동으로 쓸 수도 있다. 주제와 구성안을 사전에 합의하고 앞은 북의 시인이, 뒤는 남쪽 시인이 써서 각각 현지 출판물에 발표하여 그것을 북과 남 혹은 3국에서 합본, 출판하자는 것이다. 또한 「춘향전」을 영화로 만든다면 대본이나 연출을 남북이 분담하고, 성춘향을 북에서 내면 남에서는 이몽룡을 내는 식으로 합작을 하면 그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노래의 경우는 한쪽 시인이 가사를 써서 방송이나 다른 수단을 써서 다른 쪽에 알려주면 그쪽 작곡가가 곡을 붙여 상대방에 알려주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주제의 새로운 노래들을 남북이 함께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였다.[28]

1989년 당시 통일문학운동을 2018년의 한반도적 시각에서 다시 보니 남북 소통-대화-교류-협력의 구체적 청사진이 눈에 띈다. 1990년대 초 문예지에 수록된 북한문학 작품 소개와 통일 담론 열풍, 북한 문예지의 남한문학 소개가 동시적으로 진행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88~92년 문예지의 통일 열풍과 북한문학 소개는,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1961, 1980년 북한 작가들의 '북남 문학 교류' 제안에 대한 남측의 뒤늦은 화답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남북 문학 교류는 1989~92년엔 당국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고 2005~6년에 비로소 성사되었다.

문학의 길을 걷다보면 어디나 조국이었네," 참조.

28) 최승칠, 위의 글.

Ⅲ. ‘민족작가대회’(2005)와 ‘6.15민족문학인협회’(2006)의 의의 및 한계

앞 장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빛나는 남북 문학 교류의 전통, 그 과정을 회상이나 전언이 아니라 당시 남북한 문건(『노둣돌』과 『조선문학』 등)을 찾아 밝혔다. 즉 동시대 남북 문학의 교류 · 협력 방안과 통일 담론을 황석영의 지상 인터뷰와 『조선문학』지의 최승칠 회상기 등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29] 이는 2005년 성사된 민족작가대회와 2006년 실행된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과 기관지 『통일문학』 간행이,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갑자기 발생한 1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1961, 1980, 1989년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 문학 교류 전사(前史)의 표출이었던 셈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남한 사회에 ‘내부냉전(전쟁 공포에 근거한 자기검열과 남남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온몸으로 저항하던 ‘법을 넘어선 투쟁’으로 교류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쩌면 문학예술은 체제 수호와 정의 구현의 이념을 공권력으로 수호하려는 ‘법’과 불화하는 것이 생래적 운명인지도 모른다. 세계문학사를 훑어봐도 법 테두리 안에서 모범을 지킨 끝에 나온 걸작은 톨스토이 문학 정도밖에 없지 않은가.

남북 문학 교류는 1961, 1980, 1989년 세 차례의 시도와 좌절 끝에 참

29) 2018년 시점에서 1989~90년 당시 남북의 당시 문건을 사료 비판해볼 때 민족문학 교류를 주도한 쪽은 북한이었다. 북한의 문예총 백인준 위원장과 최영화 제1부위원장,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 담당 조정호 부위원장과 남한의 민예총 대변인이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지도위원인 황석영이 민족문학 교류와 관련된 논의 결과, 「민족문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란 쌍방이 서명한 문건을 평양에서 작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정부가 주도한 6.15공동선언(2000)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즉 남북 문학의 교류, 협력 심지어 연합단계까지 진전된 민족작가대회(2005),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기관지『통일문학』(2008) 발간 사업이 실현된 것이다. 평화체제 이전까지 사회 문화 전 분야를 통틀어 한반도 통합프로세스의 준거로 볼 때 '교류-협력-연합'이 가장 조직적 · 가시적으로 실행된 민족작가대회와 '6.15민족문학인협회'(2006) 결성의 의의를 다시 정리해보자.

2005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남북 문인 200여명이 참석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열렸다. 해방 이후 60년 만에 처음 한겨레문학의 통일된 목소리가 대내외에 울려퍼졌다. 백낙청, 고은, 염무웅, 황석영 등 남측 대표와 홍석중, 김병훈, 오영재, 남대현 등 북측 문인, 정화수, 김학렬(재일동포), 이언호(미주대표) 등 해외대표 등이 백두산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장군봉 중턱에서 민족작가대회의 성과를 확인하는 '통일문학의 새벽' 축제를 벌였다.

남의 김형수와 북의 장혜명 시인이 평양에서 열린 작가대회 본 대회(7.20)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 민족'의 이념 아래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고 기관지『통일문학』을 내며 '통일문학상'을 수여하자는 것이다. 고은 시인의「다시 백두산에서」와 오영재 시인의「잡은 손 더 굳게 잡읍시다」축시 낭송에 이어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30] 이는 그동안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남북 문학 간의 교류가 가시화된 순간이며, 통일문학으로 향한 도정을 남북해외 연합조직으로 중간 결산했던 성과라고 평가된다.

남북 작가들은 2005년의 첫 만남 이후 1년 만에 통합단체인 '6.15민족

30) 김성수,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문학의 도정-민족작가대회의 성과를 중심으로,"『어문학회 전국학술회의 발표자료집』, 대구가톨릭대, (2005.10.17.), 참조.

문학인협회'를 금강산에서 결성하였다. 2006년 10월 30일 결성된 6.15민족문학인협회는 남북 교류사에서 분단(1948) 이후 최초로 조직된 민간인의 단일 조직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해방 후 처음으로 구성된 문학인 조직이자 문학적 성향 차이를 초월하는 범 문단조직이다. 남측에선 한국문인협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대표가 공동회장단에 포함되고, 북측에선 조선작가동맹 대표가 회장을 맡았으니, 남북 문인을 대표하는 통합단체로 일컬을 만하다. 이로써 남북 문학 교류는 그 격식과 콘텐츠 면에서 진일보하였다.

남북 문학 교류 · 협력 사업의 본격 출발점인 2005년 민족작가대회와 교류 · 협력 단계를 넘어서서 초기 연합단계까지 선보인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의 의의를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본격적 문학교류의 시작이다. 2006년 10월 30일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공식 출범하여 남북 교류사를 통틀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민간인 단일조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기나긴 통일운동사의 과정에서도 한 획을 긋지만 추후 전개될 사회문화 교류의 차원과 형식을 한 단계 진전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 작가들의 공동 취재와 공동 집필, 또 문학 작품 교류 등의 사업을 이제 남측의 작가들이 북의 당국에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서 북측 작가들과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단일 조직의 내부 회의에서 토론하여 행사의 규모와 범위, 형식 및 주제를 결정하여 공동 집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겨레의 문학 영토 확장이라는 상상적 개념이 가능하다. 남북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전제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북한문학은 그 자체로 근대문학 혹은 현대문학이며 코리아반도문학의 일부인 지역문학, 지방문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북 작가들은 오랫동안 남과 북에서 다른 이념을 교육받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했던 독자만을 대상으로 문학 활동

을 전개했다. 이제 분단 관행에서 벗어나 북 작가들은 남측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남 작가들은 북측 독자들을 염두에 두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문학관, 세계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작가 교류의 실무자였던 소설가 정도상의 언급처럼 '통일이 아니라 통이(通異)'가 그제서야 간신히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2005년 여름, 평양과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우리 작가들은 북의 체제를 정면에서 만났었다. 60년이나 완벽하게 다르게 살아온, 타자로서의 체제 앞에 일부 작가들은 매우 당황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내부냉전적 사고, 내면의 저항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느꼈다.[31]

넷째, 통일 내지 통합의 단계별 과정과 내외 조건에서 문학 등 사회 문화 분야의 역관계가 반드시 정치 군사적 교류 · 협력의 종속변수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냉정한 정치적 시선으로 평가한다면 남북의 문인조직 자체를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순진한 남한 문인 일부가 말려들었다는 반북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학 교류가 정치 군사적으로 경색된 정치 군사적 위기, 갈등, 적대 국면을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민족애를 확인하는 민간 지식인 행사'(2007. 10. 24일자 남측준비위원회의 성명에 나온 표현)를 표방했으나, 그러한 선의의 의도가 관철되기엔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후 경색

31) 따라서 2006년 이후 특정 보수 언론과 문단권력인 어떤 거대 출판사, 모 문예지 커뮤니티에서 왜 방북 작가들이 북한 체제와 인권에 대한 비판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가 하고 공개 비판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지금까지도 문단 내의 강한 반북심리는 강한데 내부냉전적 감각의 실체가 그때 내면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정국의 현실적 장벽이 너무나 강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 사이의 '영혼의 대화'는 지속될 수 있고, 역으로 그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32]

'6.15민족문학인협회'는 2008년 1월과 7월에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호와 제2호를 간행하였다. 『통일문학』에 수록된 북한 소설을 보면,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적 일상이 생활 속에 드러난 작품들이 선정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측이 자신의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실제 삶을 다룬 작품을 선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문학 교류는 거기까지였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념적 규제 강화와 북한의 지나친 요구로 2009년 기관지 3호가 배포 중단되는 등 교류가 전면 중단되었다. 기관지 편집과정에서의 갈등과 그보다 더 엄혹한 현실정치의 압력 속에서 남북관계 전체가 악화되면서 조직 부활과 기관지 복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문인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라는 점에서, 2000년 전후 족출한 남북간의 1회적 이벤트성 공연이나 전시성 문화 교류에 비해서는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2000년 이후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에서 정치 ·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 형성에 문화 교류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냉전체제로 분열 · 분단된 서로의 문화를 실제 눈으로 접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막연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민 실상에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교류 과정에서 남북의 문단 학계 인사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정서나 심리는 불가역성이 높은 만큼, 서로 많이 다르지만 때로는 공감대도 확보할 수 있는 '내면의 교류, 무의식의 교류'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

32) 당시 6.15민족문학인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남북 분단 문학의 장벽이 그 정도의 감격적 장면 연출만으로 그리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아니었다. 분명 서로가 하나의 모국어로 '문학'과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문학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의미에 대한 남과 북 양측의 기준과 기대가 워낙 다르고, 통일의 성격과 지향을 두고도 현격한 간극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33]

이런 맥락에서 남북 문학의 (재)통합 프로세스에는 상호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거 및 연합 단계 등 장기 프로세스 중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2018년 시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2000년대의 성과인 '민족작가대회'(2005), '6.15민족문학인협회'(2006),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2004~현재) 등 보다 진전된 남북 교류와 협력 단계로 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 평화체제로의 도정에서 문학 교류 방향은 새로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새로운 무언가 뉴스가치만 있는 사업을 1회성 이벤트로 자꾸 만들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남북 작가들의 교류 · 협력사업을 복원해서 내실 있게 진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다.

33) 통일 · 통합문학 = 통일된 민족문학은 이상이지만 이념형이기도 하다. 항일혁명문학의 전통과 수령문학 · 선군(先軍)문학을 앞세운 북한문학의 핵심을 외면한 통일 · 통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가 2000년에 제창한 상호상승식 통일문학론(1.0버전)이 성급한 낙관론에 근거한 선취된 이념형이었다고 자기비판한 바 있다. 민족작가대회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및 기관지 『통일문학』 발간이라는 1회적 현실을 과잉 평가한 낙관적 발상이었다는 반성이다. 김성수,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제43집(2010.8) 참조.

Ⅳ. ‘계승과 신설 병진’ 원칙 : 문학 교류 · 협력 사업의 재개와 진전 방안[34]

2018년의 새로운 화해정국에서 남북 문학 교류의 ‘계승과 신설 병진’책을 새롭게 제안한다. 6.15 선언 및 10.4 선언 당시 교류 · 협력사업의 ‘계승’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 9월평양공동선언의 시대적 요구를 새롭게 반영한 ‘진전’된 새 사업의 병진 전략을 수행하자는 제안이다. 우선 2005,6년 민족작가대회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등 교류 · 협력사업의 복원 재개를 위한 현황부터 파악한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 전문인력, 인적 자원의 자연적 상실이다. 오랜 기간 쌓아온 남북 작가(문인, 문학인) 간의 신뢰가 교류 재개의 기반인데 인적 자원의 노쇠화와 세대교체, 직제 변경 등으로 인해 인적 기반이 왜곡, 상실될 상황이다. 따라서 현황 파악 및 상호 신뢰감 회복과 인적 연계망 재구축이 절실하고 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35]

---

34) 김성수, “평화체제로의 도정과 남북 문학 및 언어 교류 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제4차 통일문화정책포럼 발표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8.9. 19.) 참조.

35) 교류 사업의 재개에서 교류 주체인 인적 교류, 즉 사람이 중요하다. 2005년 교류 · 협력사업의 주역인 북의 장혜명 시인과 정도상 작가 간의 인맥 복구가 최우선 필요하다. 염무웅, 도종환, 정도상, 김재용, 안도현 등 ‘올드보이의 귀환’과 함께 고명철, 고영직, 신용목, 손홍규 등 후속세대의 노장청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공백 13년 사이에 2005년 작가대회 산파역이었던 최영화 시인, 작가대회 주역 이기형(김규동, 이호철, 최인훈 등 월남 원로), 김병훈, 오영재 등 북측 문인, 김학렬 등 재외 문인이 사망하였다. 이 분들을 뒤늦게 추모한다. 2005년 북측 파트너의 2018년 현황을 보면, 김덕철, 안동춘, 김병훈, 장혜명, 홍석중, 오영재, 남대현 등의 당시 주역 중 김병훈, 오영재는 사망, 장혜명은 와병설이 있다. 현재 안동춘 문예총 중앙위원장, 김대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일명 소설분과 위원장, 박현철 시분과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작가 연합 조직의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시대 변화에 합당한 세대교체와 출판 유통 미디어콘텐츠의 대체가 필요하다. 기존의『통일문학』지 3호 배포와 4호 편집 등 후속작업을 병행하되, 더 이상 북측에 끌려다녀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디자인과 낡은 지질, 그리고 정치구호와 검열 삭제로 누더기가 된 잡지'를 받아들여선 곤란하다.[36] 지금은 2006년이 아니다. 민족이란 텅 빈 기호, 이념에 끌려다니는 '뺄셈의 문학사, 최소 교집합'만 합의하는 느슨한 연대원칙으로 얄팍하고 부실한 콘텐츠를 통일과 민족이란 미명으로 가리면 안 된다. 독자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 남북 문학작품이 함께 편집된 문예미디어를 찾아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디자인의 문예기관지를 편집할 수 있는 소통망을 구축하되, 디지털 작업 또는 SNS 소식지와 웹진을 동시 간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주체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기구(위원회, 원, 센터 등의 거버넌스) 설립에 관료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 남북 공동 기구 운용과 병행하여 '한겨레(조선민족) 언어/문화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 망' 허브 구축을 새로 제안한다. 아날로그식 발상의 기구, 건물과 예산, 인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문화 콘텐츠 자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마인드의 언어 및 문학 교류 · 협력사업을 상상했으면 한다. 정부 부처의 어느 특정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예산과 인원 구성

36) 1989년 창간된 북한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이전의 남조선문학분과)의 기관지 계간『통일문학』, 75호 (2007년 4호)와 표지 디자인, 목차와 본문 편집체제 등이 거의 비슷하다. 더욱이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통일문학』이 창간(2008.2.1. 1호, 2008.7.31. 2호, 2009.3. 3호)된 후 북의 기관지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매체론적으로 볼 때 간행물 번호 표기방식이 북한식(ㄷ-3164)인데 반해 정작 국제 규격인 바코드와 ISBN이 없다. 남북의 다른 일반 간행물에는 다 있는 국제표준규격 표시가 없으니 '비공식, 임의' 간행물일 뿐이다.

에 관료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노력의 일부만 쏟아도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망에 한민족 전체의 언어문화 콘텐츠를 느슨한 망 조직 정도로 연계하는 실용적 구상을 하자는 것이다.[37]

마무리 삼아 남북 문학 교류 · 협력의 향후 과제를 연도별 정책 보고서 형식으로 청사진을 그려본다.

[1단계. 현황 파악] 2019~2021년에는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 문학 교류 · 협력 사업을 복구 재개한다. 5.24조치(2010) 해제가 선행되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2004~)의 실질적(특히 인적 교류) 재개, 유명무실해진 '6.15민족문학인협회'(2006)의 재결성과 기관지『통일문학』제3호(2008) 유통 및 제4호 이후의 속간, 유보된 제1회 통일문학상 수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2단계. 평화체제 도정의 전향적 조치] 2021~2023년에는 국가보안법 상 '특수자료 소지, 고무 찬양죄' 적용을 연구목적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 전제 위에서 '남북/통일 문학선집' 편찬사업과 '재월북' 작가와 문학작품의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분단/냉전체제 피해(금기, 숙청) 작품의 복원과 작가의 복권 · 신원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문학전집'(예술위, 2003. 시디롬) 편찬을 자기비판한다.[38] 남북한의 기존 '현대문학전집'류의 단순

37) 참고로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미국,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등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 문헌과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http://idp.bl.uk/ 참조). 이는 관련 문화재를 소장한 각 기관들이 소장품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이다. 현재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이 참여하여 총 51만 점 이상의 전산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38) 2003년 11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CD-ROM 형태로

병합은 곤란하니, 해체 후 재구성해야 한다. 정전 해체 후 한겨레의 한글 언어문화 콘텐츠를 스캔 촬영한 후 통합 구축하자. 다양한 언어 · 문화 · 예술 텍스트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서울과 평양의 실물자료를 스캔 후 링크만 거는 허브는 예산과 인력, 저작권 등에서 실행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료 제공을 편리하게 하되 수용은 수용자의 몫으로 남기는 탈근대, 비계몽 원칙이어야 한다. 북측에게도 선전과 교양이라는 당문학 원칙의 느슨한 해체와 디지털 시장논리로 유통하는 정황을 양해받아야 한다.

[3단계. 남북연합 초기단계] 2024년 이후 남북 문인 통합조직의 주도하에 재북 · 월북 · 월남 · 재남 문인의 활동 공간이나 작품 배경이었던 주요 공간을 보존 관리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문인 생가터 보존과 복원, 유명 작가의 문학관, 기념관, 작품 소재나 배경이 되는 지역의 탐방로 조성 등이 실례이다.

남북은 체제 분단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학의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공유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말과 글에서 동일한 언어유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문규범이나 어휘 등 언어생활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질화 현상도 심각하다.[39] 남북한 사이에 문화 교

발간한 『통일문학전집』이 '미배포'되었다는 학술회의 발표 초고는 잘못이다. 당시 전국 특수자료실에 배포했으나 활용이 안 되었을 뿐이다. 시디롬을 구동해서 콘텐츠를 보려면 개별 컴퓨터 하드에 문예진흥원의 '정보 key'을 받아 인스톨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사장되었다. 당시 실무자이자 학술회의 토론자인 오양열 선생님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39) 이 글을 쓰는 중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한국학자 Barbara Wall이 Korean Studies FU Berlin에서 'Feierliche Eröffnung des neuen Institutsgebäudes에 참석 중'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Institut fuer Koreastudien der Freien Universitaet Berlin이 우리 연구소의 공식명칭이다. 남쪽에서는 우리를 한국학과로 부르고

류가 활발해지고 학자들 간의 인적 왕래와 정보 교환, 지적 자산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러운 언어문화 교류 및 통합 언어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침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김정은 ‘시대’ 제2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 2기가 대외적인 긴장과 대내적인 결속을 다졌던 2017년의 강경노선을 버리고 2018년 이후 급변한 것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인민경제 발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문화예술계의 긍정적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속도전으로 교류 · 협력을 재개 및 진전시켰으면 하는 희망을 품는다. 가령 9월 14일 개소한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소통 창구 상설화,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동시적 병행적 시도를 하면 어떨까 한다. 정부의 공식 창구 개설을 기다린 ‘후’가 아니라 비정치적 비정부적 교류를 ‘병행’하거나 때로는 ‘선’조치를 해서 본격 교류의 ‘마중물’ 차원에서 저지르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

미리 준비할 것은 과거사 정리이다. 납 · 재 · 월북 · 월남/숙청/연좌제 등으로 금지/금기/금제했던 ‘분단 피해’ 작가의 복원 · 복권 · 신원운동을 위한 남북 문단 · 학계의 공동 조사 연구 협력을 제안한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분단/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기초 자료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포용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은 협력의 기초다. 통일연구원장의 주장처럼, 주고받는

북쪽에서는 조선학과라고 부른다. 어떻게 부르든 우리는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이것이 바로 남북 발화자가 애써 외면하지만 2018년 10월 지구의 현실이다. 유광석, “주독 北 대사, “핵무기 없는 한반도 위해 남북 같이 노력,” KBS 뉴스(온라인), 2018.10.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5464〉

과정이 반드시 '같은 값'일 필요는 없다. 기계적 상호주의는 불신의 반영이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대북 제재 국면이라도 신뢰의 실천적 조치를 아낄 이유가 없다. 이때 협력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다. 적대 관계에서는 지속가능한 협력이 불가능하다.[40]

다음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남북한 ·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예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허브 구축을 제안한다.[41] 남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겨레 디아스포라 문학예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허브를 상상하자. 그 전제조건으로 (남)한국/(북)조선문학 개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터이다. 어쩌면 '코리아문학 리부트'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존하는 분단 ·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의 대립적 지양체인 '통일문학2.0'을 재구성하되, 그 이념적 전제인 민족 · 통일이라는 개념이 총체성을 강제하는 도덕적 당위나 사회적 심리적 억압 '장치'로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42]

---

40) 김연철, "협력적 비핵화의 성공조건," 『한겨레』, 2018.1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3848.html〉

41) '한/조선반도'의 '코리아 문학'과 전 지구적인 '코리언 문학'의 개념 확산도 감안하라는 익명 심사위원의 제안에 동의한다. 코리언문학이라면 해외 코리언, 한겨레(디아스포라)의 문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42) 이와 관련하여 남한 위주의 〈통일문학전집 시디롬〉(2003)도 문제가 많지만, 북한 중심의 『통일문학작품전집』(평양출판사, 2015~2018년 현재까지 계속 간행중)도 통일문학이란 미명 하에 북한판 '남조선 비판 문학'을 통일 주제 문학이라 강변하고 수령론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강요한 일방적 편찬방식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가령 리찬의 「김일성 장군 찬가」와 백인준의 「벌거벗은 아메리카」가 왜 통일문학선집 1권의 대표작인지 의문이다. 『통일문학작품전집① 통일되는 날에』(평양출판사, 2015), p. 10, p. 336. '코리아문학 통합'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모색하려고 과거 전거를 발굴한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남북

'미투운동'과 '난민 찬반론'에 휩싸인 2018년의 2030세대에게 일종의 사회심리적 '억압기제'로 (역)기능하는 '1987년 체제'식의 '민족, 민족문학, 통일 · 통합 문학'이란 당위적 개념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를 외면하면 안 된다. 청년 세대들에게 통일은 당위가 아니다. 그래서 소통과 화해 놀이로서의 교류 · 협력 방식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터넷 네트워크 중심의 느슨한 연대, 동거, 연합이 남북 교류 · 협력의 새로운 출구로 되었으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코리아문학 리부트' 이후의 문학이 또 다른 억압장치로 변질될 것이라면 차라리 문학사를, 통일 · 통합 문학사를 상상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이것이 남북한 문학의 장점과 미덕, 가령 리얼리즘 민중사 역사소설 중심으로 통일문학사를 서술하자고 '상호상승식 문화통합론'을 주창했던 '통일문학 1.0 담론' 제창자[43]로서 2018년에 '코리아문학 통일 · 통합의 (불)가능성'이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속내이다.[44]

물론 평화체제 이후 더 먼 거리의 통일된 민족문학으로의 도정에 대해서 남북한 학자나 문예당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존재하지는

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통일문학' 전유 자체가 진정한 통일 · 통합문학의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코리아문학 통합의 (불)가능성'이란 잠정적 화두를 논문 제목으로 달고 '리부트'란 수사까지 동원하여 남북한 학계의 장래 소통의 장에 쟁점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43) '통일문학1.0' 김성수, "남북한 근현대 문학사 비교와 통합방안,"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책세상, 2001.4) 서장 참조. 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토지문화재단의 제2차 한국문학사 편찬연구 심포지엄(2000.8.18)에서 이루어졌다. 남북 문학사의 통합 논리를 무리하게 펴는 경우 문학의 정치 종속성이 우려된다는 임헌영, 이선영 선생님의 지적을 수정 보완한 바 있다.

44)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코리아문학 통일 · 통합의 (불)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기에 제목을 바꾸라는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제목의 용어 · 개념은 20년 가까이 필자가 제창해온 '통일문학론'의 연장선에서 '코리아문학 리부트'까지 거론하는 발본적 차원의 새로운 의제라서 후속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해명하기로 한다.

않는다. 무엇보다도 두 체제 사이에 언어 · 문화관, 세계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아니라 통이(通異)', 즉 이질적인 두 체제 사이에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분명 통일된 언어 · 문학이지만 실제 현실은 체제와 이념 간극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다만 언어 · 문학의 민족적 동질성이 큰 만큼 현금의 적대관계가 완화되는 경우 가장 먼저 사업을 재개하고 이후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강화해야 할 터이다. 가령 '한겨레 언어문화 자료'의 넷망 구축이야말로 새로운 방향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 접수: 2018년 10월 31일 / 심사: 2018년 11월 1일 / 게재확정: 2018년 12월 3일

【참고문헌】

구갑우 외 공저.『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김경웅. “통일의 사회문화적 접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방향 모색.”『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4호 (1994).

김병로. “통일 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김성수. “1990년대 초 문예지의 ‘통일’ 담론과 북한문학 전유방식 비판- 북한 문예지『조선문학』과의 매체사적 대화.”『상허학보』, 54집 (2018.10).

_____. “4.19와 1960년대 북한문학- 선동과 소통 사이: 북한 작가의 4.19 담론과 전유방식 비판.”『한국근대문학연구』, 제30호 (2014).

_____.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문학의 도정.”『어문학』, 91호 (2006.3).

_____. “코리아문학 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소설가 남대현과의 만남.”『문학과경계』 2006년 가을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북한문학의 지형도』. 이화여대출판부, 2008. 재수록)

_____. “통일 담론과 남북 문학사 소통방안.”『민족문학사연구』, 제56권 (2014.12).

_____.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민족문학사연구』, 제43권 (2010.8).

_____.『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서울: 책세상, 2001.4.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10.

김재용.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북한문학으로서의 재월북 작가 연구.”『국어국문학』, 제168호 (2014).

_____. “분단구조 하의 남북 중심주의와 민족문학의 과제.”『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사, 2000.

남원진.『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4.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새 민족문학사 강좌』. 파주: 창비사, 2009.

박영정 · 김성수 외. “남북 문화교류 · 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유임하 외. “북한 문학사의 쟁점.”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새 민족문학사 강좌』2권. 파주: 창비사, 2009.5.

이영미. “남북한 통일문학사 기술의 과제와 전망.”『한중인문학연구』, 제50호 (2016).
장성규. “통일문학을 넘어 탈분단 문학으로.”『실천문학』, 제98호 (2010).
정동영 · 지승호.『10년후 통일』. 서울: 살림터, 2013.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역.『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2010.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서울: 동문선, 1999.
하버마스. 한승환 역.『공론장의 구조변동-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출판, 2001.
황석영.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엮음,『사람이 살고 있었네: 황석영 북한방문기』. 서울: 시와사회사, 1993.

Gabroussenko, Tatiana. *Soldiers on the Cultural Front: Developments in the Early History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Literary Policy.* Hawai'i: Hawai'i Studies on Korea, 2010.

『녹두꽃』
『노둣돌』
『로동신문』
『문학신문』
『실천문학』
『조선문학』
『창작과비평』
『통일문학』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f Unification & Integrated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 History and Tasks of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Kim, Seong-su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literary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issue of literary dissemination of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2018.4.27) & September Pyongyang Joint Declaration(2018.9.19) and to explore future challenges.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n literature and North Korean literature were attempted three times in 1961, 1989, and 2005.

After the 4.19 Revolution, North Korean literary writers proposed literary exchanges in the name of racial literature, which went in vain due to the 5.16 Military Coup. The Inter-Korean Literary Writers Conference was pushed forward actively with the efforts of Hwang Seok-Yeong, etc., in 1989, which eventually turned out to be fruitless. At that time, the blueprint for literary exchange plan and cooperation was drawn in the wake of the Racial Literary Writers Conference(2005), establishment of '6.15 Racial Literary Writers Association'(2006), and publication of its *Tongil Munhak*(*Unification Literature, 2008*). However, the literary exchange was 1discontinued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South Korea's conservative regime.

Now, the 'inheritance and new parallel-advance' policy were proposed for resumption of literary exchange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of situations in 2018, a period of watershed for the peace system. It is imperative to inherit the federation of 2006 while moving ahead with the generational shift and the change of media contents. At this time, the normative concept of unification literature and racial literature should not serve as a mechanism for psychological suppression in the society. It would be necessary to abandon the vested rights of South Korean literature and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o reshape the Korean literature. That would be epitomized by formation of internet network(YouTube) hubs for 'linguistic literature materials of the Korean race' worldwide for practical communication, rather than normativ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Key Words: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integratio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Unification literature(Consolidated literature), Korean National Writers Conference, 6.15 Racial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Tongil Munhak*(Unification Literature).

김성수(Kim, Seong-Su)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 교수 겸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개인 저서 『카프 대표소설선』(1988),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2001), 『프랑켄슈타인의 글쓰기』(2009), 『한국근대서간문화사연구』(2014) 외에, 『3대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2014),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2014), 『김정은 시대의 문화』(2015),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2018),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2018) 등의 공저가 있다.